485:471호.qxp 12. 03. 31 오? 4:14 페이지 5

동 · 문 · 동 · 정

총동창회 회장단 회의 개최

이덕록 총동창회장(전기·85)은 10월 14일 저녁 매일가든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교취업박람회와 경일인 등반대회 결과보고와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와 경일인등반대회 등 2011년 사업일정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중앙문화예술제 예대인상 수상

윤순영 중구청장(경영·95)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을 빛낸 동문에 선정돼 11월 3일 오후 서울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제15회 중앙문화예술제 예대인상'을 수상했다.

숲가꾸기의 달 기념행사 참석

김병목 영덕군수(행정·99)는 11월 8일 영덕군민공원에서 열린 "숲가꾸기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전국최고의 산림토양에서 생산된 로하스 영덕산 송이를 전국에 알리고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전하고 산림자원을 아끼고 보호해야할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과학대 핸드볼 경기장 오픈

김석종 대구과학대 총장(토목·76)은 10월 23일 영송체육관 개관식을 가지고 교직원 가족을 초청해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영송체육관은 대구지역 최초 국제규격 핸드볼 경기장이다.

고층건축물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이태근 경산소방서장(행정·90)은 11월 3일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고층건축물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잇따른 고층건축물 화재와 관련,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방화관리 강화 및 월동기 방화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행사 참석

이한수 대한설비건설협회 대구시회장(기계·74)은 지난 9월부터 협회 전국시· 도회장회의 및 세미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임시총회 등 일본과 서울, 강원 등지에서 분주히 활동 중이다.

기계공학부 동창회장 이·취임식 개최

기계공학부동창회는 지난 달 30일 인터불고EXCO에서 이덕록 총동창회장과 기계과 동문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계공학부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이대범 회장(기계·69)은 전임 김규태 회장(기계·67)이 이룩한 각종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학부 동창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목공학과 동창회 'Home Coming Day'

토목공학과 총동창회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졸업생 및 재학생 300여명이 모여 '건설공학인의 날 및 Home Coming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의길 동창회장과 이종헌 모교 학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모여 선후배간에 우정을 나눴으며 동문의 단결과 학교발전에 더욱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토목공학과는 2010학년도부터 건설공학부로 학과명을 바꾸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역동적인 건설인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목인의 날' 행사로 시작한 '건설공학인의 날' 행사는 해를 거듭할 수록 규모와 내실을 키워가고 있다.

부산지역동창회 가을등반대회 개최

부산지역동창회 회원과 가족 18명은 지난 10월 30일 아침 6시 40분에 김해 공항 국내선 2층 청사에 모였다. 산행대장 부부를 포함하여 총 9가족18명이 모두 도착하자 총무가 준비한 김밥으로 아침을 먹고, 부푼 마음으로 대한 항공 비행기를 타고 40여분 만에 제주도에 도착했다.

준비된 미니 버스로 한라산에 도착하니 만추의 시원한 날씨가 한라산 등반에 안성맞춤이었다. 한라산 중턱에서 1950고지 정복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출발했다. 6시간에 걸친 산행코스는 제주 특유의 오름으로 이어졌으며, 등선의 가을 풍취와 병풍절벽에서 바라본 파란 가을바다, 신들이 모여 사는 영실의 가을 단풍은 10월의 마지막 날 제주 산행의 진미를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서귀포 '작은 프랑스호텔'에 여정을 푼 뒤 저녁에는 환갑을 맞은 산행대장을 위하여 우리 모임에서 조그만 기념물 전달이 있었다. 회장단에서 준비한 축하케익과 행운의 열쇠(금2돈) 전달식이 있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동문 전원의 건강과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건배가 이어졌다. 이날 만찬을 산행 대장께서 찬조해주셨고 부회장께서 양주1병을 협찬 해 주셨다.

다음 날 조도(새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범섬을 바라보며 기념촬영을 하였고 미니버스를 타고 "생각하는 정원" 성범영원장이 직접 30여년간 가꾼 정원을 견학하며 조경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점심도 굶고(점심 비용으로 나중에 귤 1박스 선물 받았지만) 기다리던 제주도 러브랜드를 찾았다. 성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전시품과 모형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았다. 마지막으로 자연사 박물관에서 제주민의 삶의 애환이 닮긴 생활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 조상과 제주도민의 삶 또한 우리보다 어려운 과거였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횟집에서 맛있는 회요리로 포식을 하고 8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동문님께서도 사진으로나마 함께 해 주시고, 향후에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짧은 기행문을 마칩니다.

2010.11.2

조민현(기계·78)